

강기정 “민·군공항 이전, 3자에 맡겨선 진전 없어”

광주시 국감

“진도 안나가…국회·정부 나서야”
강경발언 지적엔 “편하 의도 아냐”
“이전한다면 할 수 있는 것 다할 것”
지역소멸 대안·행정통합 등 쟁점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그간 다소 거칠었던 자신의 언사에 대해 “편하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전남과 무안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강 시장에게 사과할 뜻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전남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 시장이 발언한)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만큼 사과 표명이 필요하고, 연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시한 역시 대안도 없는 무리한 설정”이라면서 “이런 부분 등에 대해 광주시가 사과하고 취소한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주선해 보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강 시장은 “공항 통합 이전을 무안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다”고 전제한 뒤 작심한 듯 말을 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강 시장은 “통합 이전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 하겠나. 사과하려면 열 번도 할 수 있다. 플랜B도 없애라면 없애겠다”면서 “전남도도와 무안군에 합흥차사, 양심불량 얘기한 것은 그동안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한 일이다. 그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대구공항을 옮길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을 팔아 넘겼다’는 욕을 들을 정도로 뛰어 다녔다”며 “이 지

사처럼 ‘야단맞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통합 공항 이전은 진도가 나가지 못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무안군수에 대해서도 “맨날 안 된다는 말만 하는데, 무안공항 KTX 등 국책사업은 다 가져가면서 군공항은 논의도 안 한다”면서 “더 이상 3자(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에게 맡겨 놔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강 시장의 태도에 대해 국감 의원

들은 ‘소통이 우선’임을 주문했다.

양 의원의 경우 “전남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강 시장이 적절한 시기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시·도지사가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 강 시장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양측간의 관계 복원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 역시 “합흥차사, 양심불량, 무안군수 막힌행정 등 강 시장의 사이다 별언이 때로는 행정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시장이 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을 두고도 의견대립이 일어났다.

국힘당 이 의원은 “수도권 1극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타 지역도 행정통합 등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도 관심이 많은 만큼 광주와 전남·북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방행정통합을 주문했다.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당면한 문제는 비슷하다”며 “광주 인근 도시와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기업을 갖고 있는 타 지역과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역소멸위기 대안으로 광주와 전남지역 우선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은 전남일 정도로 하나인데 행정이 나뉘어져 있어 강기정 시장은 광주만, 김영록 지사는 전남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되는 등 아쉽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광주전남·북 메가시티 구상을 위해 관광을 시작으로 교통 광역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또 광주와 전남 통합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노병하 기자

한강 노벨문학상·KIA 한국시리즈 ‘화제 만발’

광주시 국감 이모저모

“노벨상 2명 도시서 국감 영광”
강 시장에 ‘우승 전망’ 질문도

2024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단어는 ‘한강’,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 ‘KIA 타이거즈 시즌 우승’이었다.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촉구, 31년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치는 KIA 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를 축하했다.

먼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글을 써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소설의 영감이 된 광주시를 축하해야 한다”며 박수를 요청했다.

이에 국정감사에 참석한 10명의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

은 박수를 치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노벨상 2명을 배출한 호남에서 국감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시리즈도 사자와 호랑이 대결”이라고 덕담을 건넸고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호남지역 중심인 광주에서 한강 작가가 배출됐고 노벨상을 수상해 축하한다”며 “책 ‘소년이 온다’를 읽고 광주에 왔는데 느낌이 새롭다”고 표현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민주주의의 도시, 노벨상의 도시 광주 빛고을에 방문해 영광이다”고 한 뒤 “프로야구 KIA가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는데 우승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고 강 시장에게 질문해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강 시장은 “KIA가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화답했다.

뒤이어 의원들은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강 시장은 “5·18 헌법전문수록 개헌추진본부(개헌추진본부)를 만들 때 국회의 협조·동의를 구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였지만 질타도 많았다. 최근 노사갈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형 상생일자리의 경우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노사갈등은 광주시가 약

속한 주거 해결이 지켜지지 않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생활자금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광주월드컵경기장장의 잔디와 관련해서도 “지금 광주의 축구장은 논두렁 같다는 이야기가 돌리고 있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는 268km 떨어진 용인에서 치러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광주 저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방안, 정음성 역사공원 이념논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 문화의 섬 진도 미래비전 선포

아리랑
문화예술제
진도군보배섬
문화예술제
아리랑
융복합공연
2024.10.25.-27.

code 코드 아리랑
만개 아리랑
萬開 滿開

2024.10.25. (금) 오후 5시부터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야외특설무대

아리랑 주제의
시공간 융복합 공연
아리랑의 과거 ~ 현재 ~ 미래

1부 원형·민속의 3개 시도 아리랑
2부 모던·퓨전·크로스오버 아리랑
3부 포스트모던·다원예술 아리랑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진도군 진도군 협력 [사]한국예총 진도지회
주관 全南日報 진도문화도시센터